

한국청소년오지탐사대 네팔·티벳 탐사기

네팔 서부

전라도 맛 기행

오르락 내리락 고행 75km "삶이 그런거야"

대한산악연맹의 '2007 한국청소년오지탐사대' 네팔·티벳탐사대가 7월 26일부터 23일동안 네팔 서부와 티벳의 산군에서 탐사 및 봉사활동을 벌였다. 대학생을 중심으로 모두 19명으로 구성된 이번 탐사대에 광주·전남에서는 최학곤 순천금당고 교사(단장), 이병철 예당고 교사(대장), 광주대산악부 박행수씨(등반대장) 등 3명이 참여했다. 이병철 대장의 탐사기를 네팔과 티벳편으로 두 차례 나눠 실는다.

해발 2,950m에 자리한 시미코트는 네팔 서부 트레킹의 출발점으로 현지에선 히든 히말(Hidden Himal)이라 칭할만큼 장쾌한 계곡과 능선을 자랑한다. 이 곳에 자리한 히말도델보딩스쿨(Himal Model Boarding School)은 우리의 유치원 과정과 비슷한 교육 코스와 5년의 학제시스템 아래 130여명의 어린이들이 공부하고 있다. 아울러 SLCL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민들에게도 영어를 가르치고 있었다.
원정대는 본격적인 탐사활동에 앞서 학생들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국문화 홍보, 현지문화 체험 및 교류, 봉사활동에 나섰다. 대원들은 염서를 활용한 한국 소개와 풍선놀이, 그림놀이, 제기차기, 태권도 시범 등을 펼쳤다. 교장선생님은 "한국 사람이 이곳을 방문한 것은 처음"이라고 반가워했고 호기심 덕분인지 주민들

캠프(Khola Camp)와 캐르미(Kerm), 톰코트(Tumkot·3,068m)에서 각각 야영을 하며 길을 재촉한다. 대원들은 한 낮 기온이 50도에 육박하는 폭염과 고산병에 대한 두려움, 트레킹 내내 간헐적으로 내리는 빗속에서도 도전 의지를 꺾지 않는다. 산길 곳곳에서는 염소와 야크의 행렬과 마주친다. 사람들이 다니는 길과 짐승이 다니는 길이 하나여서 비와 짐승 배설물은 뒤범벅이 되어 대원들의 발길을 붙잡는다.
하루 10~20km, 해발 3,000m의 고지대를 오르내리는 탐사대는 대원들의 체력적 한계를 시험하곤 한다. 자칫 잘못하면 고산증세로 뇌수종과 폐수종에 걸릴 수 있다. 숨쉬는 것조차 이 정도 고도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고도를 높일수록 숨쉬는 타이밍을 놓치면, 한 번씩 거친 숨을 몰아쉬어야 한다. 대원 한 명은 제대로 고소 적응을 하지 못해 티벳 타클라코트에서 5일간 폐수종으로 입원해야 했다.

드디어 네팔과 티벳의 국경인 나라(Nara)패스에 닿았다. 우리만의 정상이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던져놓은 물들이 모여 이제는 큰 제단이 되어버린 돌밭에서 오늘이 분봉이 되어 버린 어린 산꾼들의 바람을 읽는다.
고개 위에 서니 저 아래 사람들이 마치 대자연이 서술해 가는 한 편의 시와 에세이의 씩씩함 나마처럼 처럼 느껴졌다.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져 한 편의 서사시를 쓰고 있는 것이다. 지극히 높은 산 위엔 하얀 눈과 얼음



네팔 서부 트레킹의 시작점인 시미코트를 출발한 '2007 한국청소년오지탐사대' 네팔·티벳탐사대원들이 지난 5일 티벳과 국경인 나라패스를 향해 해발 3,000m의 고지를 넘어오고 있다.

50도 폭염·고산병 극복하고 옛새만에 나라패스 도착

해발 2,950m 자리한 학교서 한국 홍보·봉사활동도



지난달 31일 시미코트의 히말도델보딩스쿨을 방문한 최학곤(순천금당고 교사·왼쪽에서 두번째) 단장과 이병철 예당고 교사. 대원들이 교사들에게 학용품과 축구공을 전달하고 있다.

이 대가 물러 한바탕 마을축제를 진행했다. 현지 어린이들도 우리를 위해 노래와 춤을 선보였다. 처음엔 말이 잘 통하지 않아 어려웠지만 대원들과 주민들은 어느새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면서 금세 하나가 됐다. 학용품과 축구공 전달을 끝으로 행사를 마무리할 무렵 헤어지기가 아쉬워 눈가가 붉어질 정도였다.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본격적인 탐사에 나섰다. 목격지는 나라패스다. 마을 뒤 해발 3,200m의 언덕에 오르니 계곡 아래 힘찬 물살에 물들이 가루가 되어 희색빛을 띤 카말나강(Humla Karnali River)이 거대한 아나콘다처럼 구불구불 흘러간다. 시미코트에서 나라패스를 거쳐 티벳으로 가는 길은 이 강의 흐름과 함께 해야 한다.
다라푸리(Dharapuri·2,270m)의 초록풀밭인 콜라

이 가득하고, 낮은 곳에 사는 인간들은 그것을 닮아서, 하얗고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산에 오를 수 있는 것이고, 산에 올라서는 어물림으로 그 안에 동화되어 버리고자 하는 것은 아닐까?

나라패스를 통과하면 하염없이 내려가야 한다. 그렇게 힘들어 며칠을 올라왔지만, 이처럼 허무하게 내려갈 줄이야. 누군가 던진 한 마디가 귓가에 스친다. '삶이란 원래 그런 거야'
내려서는 길은 힘사투 이어진다. 중국 티벳차구지역인 씨에라와의 철제다리도 연결된다. 시미코트를 출발해 옛새동만 지나온 길을 지도로 확인해 보니 75km, 참 많이도 걸여왔다. /글=이병철 보성예당고 교사 /사진=2007 한국청소년오지탐사대

광주 동구 지산동 '광양숯불구이'



연한 한우 입에 착착 붙네
맛깔스러운 밀반찬 식욕 돋우고

불고기는 전국 어디에나 있는 흔한 음식이지만 광양불고기는 조선시대부터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광양 불고기의 역사는 조선시대 김해 김씨 성을 가진 내외가 광양에 살고 있을 때, 인근에 벼슬하다 귀양 온 선비들이 천민의 아이들을 가르쳤다.
이에 김씨 부부가 그 보은으로 어린 송아지와 연한 암소를 잡아 갖은 양념을 하여 참숯불을 피우고 구워 석쇠에 구워 대접했다고 한다.

그 선비들 중 관직에 복귀하여 한양에 가서도 광양에서 맛 본 고기맛을 잊었어 '천하일미 마로 화적'(마로는 광양의 옛 지명)이라 하며 광양의 불고기맛을 그리워 했다고 한다.
광양까지 가지 않아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8-3의 '광양숯불구이 지산점'에서 광양숯불구이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특히 숯불구이 외에도 김순의(여·55)사장의 후학인 임심과 맛깔스러운 밀반찬은 타지 사람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될 정도.
배알갈게 양념이 된 계장, 물김치, 단호박은 숯불구이 먹기 전 인기 주점부리로 식욕을 돋운다. 광양숯불구이 집에서 사용하는 고기는 순수 한우, 신선한 한우고

기를 먹기 좋게 썰어 간장 등 특제 소스에 2~3일 재워 고기냄새를 없애고 약간 달콤한 맛이 나도록 한다. 이렇게 맛이 밴 숯불구이를 무우, 양파, 생강, 마늘 대과 등을 넣어 육수에 우려낸 후 간장, 갈바등을 넣어 만든 소스에 찍어 야채쌈을 곁들이면 이만한 음식 호사가 없다.
숯불구이를 먹은 후 막 지어낸 콩밥, 떡볶이에서 보글거리는 계란밥, 토호떡을 함께 비벼 된장국과 먹으면 이 또한 일미다. 밀반찬이 맛있게 과식하게 되니 고기 먹을 때부터 식량을 잘 조절해야 한다. 1인분 1만8천원. 문의 062-226-8080.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맛 : ★★★★★
분위기 : ★★★★★
가격만족 : ★★★★★
< ★ 6개 만점 >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대인부동산컨설팅' (Daein Real Estate Consulting) with contact info 011-625-0510 and details on various properti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금부부동산컨설팅' (Geombu Real Estate Consulting) with contact info 261-8949 and details on various properti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방방방방방' (Bangbangbangbangbang) with contact info 010-3002-0099 and details on various properti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Eiplus Certified Real Estate Agent) with contact info 062-973-9174 and details on various properti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현대공인중개사' (Hyundai Certified Real Estate Agent) with contact info 062-371-1900 and details on various properti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법원경매 전문회사' (Court Auction Specialist Company) with contact info 082-222-8446 and details on various properties.